

SK케미칼, '수원 지관서가' 개관... “열린 인문공간 기대”

수원시 협력... 740㎡ 복합구조 조성
독서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SK케미칼과 수원특례시가 시민들을 위한 열린 인문·문화 복합공간을 선보였다.

SK케미칼은 수원특례시와 함께 시민을 위한 '수원 지관서가'의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은 SK그룹의 모태인 선경직물이 위치했던 곳이다.

지관서가는 시민의 마음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인문·문화 복합공간 형태의 도서관으로 SK그룹은 울산에 6곳, 안동, 여주, 울진에 각 1곳의 지관서가를 운영 중이며 수원이 10번째다. '지관'은 '멈추어 바라보다'는 뜻으로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춰 자신과 세상을 되돌아보며 삶의



(왼쪽부터) 이재준 수원시특례시장, 안재현 SK케미칼 사장이 '수원지관서가'의 개관식을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케미칼

지혜를 발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평생학습공간의 일부를 리모델링해 문을 연 수원 지관서가는 총 740㎡ 규모의 복층

구조로 조성됐으며 전국 10개 지관서가 중 가장 큰 규모다. 1층은 서가와 카페 공간, 2층은 서가 중심의 열람 공간으로 구성됐다. 서가에는 총 900여권

의 서적이 갖춰졌다. 또 서가 한편으로 야외 정원을 만들어 기존 평생학습관과는 분리된 독립적 공간을 조성했다.

수원 지관서가는 매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과 학자를 초청해 인문학 강연과 독서토론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SK케미칼과 수원특례시는 이를 통해 지관서가가 모든 세대가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는 열린 인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

안재현 SK케미칼 사장은 "SK의 태동기를 함께하고 그룹 성장의 토대가 된 수원시에 시민들을 위한 지관서가를 개관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단순 지관서가를 운영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수원시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유한재단, '유일한 장학금' 수여식

유한재단은 지난 23일 서울 동작구 유한양행 본사 4층 연수실에서 '2025년 유일한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중수 유한재단 이사장(왼쪽)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유한재단



쿠팡-소진공, 소상공인 지속성장 지원

쿠팡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경수 쿠팡CPLB 대표(왼쪽)와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이혁노 현대차그룹 상무(왼쪽),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24일 서울시 용산철도고등학교에서 실습용 전기차 기증 행사를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미래 모빌리티 인재 육성

특성화고등학교 5곳에 전기차 기증
고장 진단 등 다양한 실습교육 활용

현대자동차그룹이 자동차과를 운영 중인 특성화고등학교 5곳에 실습용 전기차를 기증하고 미래 전기차 정비 전문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현대차그룹은 24일 서울시 용산철도고등학교에서 이혁노 현대차그룹 상무, 설세훈 서울시 부교육감, 백해룡 용산철도고 교장, 이명섭 인덕과기고 교장, 양국현 한양공고 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특성화고 자동차과 학생들을 위한 실습용 전기차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차량 기증은 기존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기차 정비를 이룬 위주로만

학습해야 하는 열악한 실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

현대차그룹은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해 용산철도고, 한양공고, 서울공고, 인덕과학기술고, 신진과학기술고에 실습용 전기차 각 1대를 전달했으며, 해당 차량은 ▲모터 및 전장 계통 구조 학습 ▲고장 진단 실습 ▲모듈 교체 훈련 등 다양한 실습 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지원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실제로 전기차를 다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중진공, 韓-칠레 스타트업 협력체계 구축

현지 대학과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칠레와 양국 스타트업 협력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중진공은 23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아우토노마(AUTONOMA) 대학과 한·칠레 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프란시스코 바게티(Francisco Baghetti) 아우토노마 대학 총장 대행, 김학재 주칠레 대한민국대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대책' 일환으로 마련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한국 중소기업의 칠레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양국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정보교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중진공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 졸업기업과 아우토노마 대학의 창업지원 인프라를 연계해 중남미 시장에서의 글로벌 진출 성공사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bada@



금호건설, 결식아동 1000만원 후원

금호건설은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인 'DOVE's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 1000만원을 초록우산에 결식아동 후원금으로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관상 금호건설 경영지원본부장(오른쪽)이 신정원 초록우산 사회공헌협력본부장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건설

한일시멘트, 76만평 규모 숲 가꾼다

단양군 산림경영 계획 인가 획득

한일시멘트(사장 전근식·사진)가 충북 단양에 축구장 350여개와 맞먹는 약 76만평 규모의 숲을 가꾼다.

업계 최초로 보유 부지에 숲을 만들어 탄소 저감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한일시멘트는 지난 23일 충북 단양군으로부터 산림경영 계획에 대한 인가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는 이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252헥타르(ha), 축구장 약 350개 규모의 임야를 10년간 개발하지 않고 건강한 산림으로



가꾸나갈 계획이다.

한일시멘트와한일현대시멘트는 이번 산림경영인가획득에 그치지 않고 산림탄소흡수원 인증도 획득할 계획이다.

한편한일시멘트는 탄소중립을 위한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 중이다. 시멘트 생산과정 중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2026년까지 5179억원 규모의 친환경 설비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김승호 기자



현대글로벌비스, 어르신들과 봄 나들이

현대글로벌비스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글로벌비스 임직원 봉사자들은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 100명을 모시고, 성수동 서울숲 일대에서 산책로 걷기와 가족공예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현대글로벌비스

인사

◆글로벌이코노믹 △편집국 편집위원 겸 부국장 이재욱

◆영남경제신문 △상무이사 겸 선임기자 양병환

부음

▲최서영씨 별세,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병부상 = 23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 02-2072-2010

▲강기선씨 별세, 강득주(제이오 대표)·강득화·강득봉·강득성씨 부친상 = 24일 오전 6시 18분,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6일. 032-890-3180

4월

25일(금)

음력: 3월 28일

수도권 날씨

8 ~ 18℃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44

해질 / 19:16

백령도 8/14

연천 3/18

동두천 4/19

가평 3/18

파주 3/18

서울 8/18

양평 5/19

인천 9/16

수원 8/17

용인 8/17

평택 5/1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